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8호 [루게 제2290호] 주제99 (2010)년 2월 7일 (일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자!

사설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하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구적인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발표되었다.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통성선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룩하여온 위대한 항도자, 어머니당의 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의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구호에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며 2012년에 강성대국선로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기 위한 투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구체적인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리켜주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느끼는 크나큰 긍지이며 영광이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긴 올해공동사설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령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받아안고도 부받치는 격정으로 혁신의 날과 날을 보내는 속에 또다시 공동구호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의 붉은 피가 펄펄 끓어넘치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에 새 기록, 새 전진속도창조로 열렬히 화답할 결의를 넘쳐있다. 현실은 천만민민의 신장에 불을 달아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의 령도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 명예의 승리의 위력을 뚜렷이 파시하여주고 있다.

이번 공동구호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한 지난해의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다시한번 최후승리를 위한 대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자는 데 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거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 인민의 행방이 활짝 꽃피는 변혁의 해로 빛내이리라는 뜻을 굳게 믿으면서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공동구호를 발표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대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어가는것은 위대한 승리의 길이며 인민들의 천생의 념원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천대대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서고금의 국가건설사에 류례없는 혈전군사, 만산초행길을 헤치시며 이 땅위에 자립, 자립, 자립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셨다. 우리 조국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철의 의지에 의하여 세우지고 수령님의 웅대한 설계도와 완강한 실천력에

제국주의반동들의 비렬한 제재압박을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쳐갈기며 우리 당이 내세운 전략적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이며 민족의 명예와 우리 제도의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선군조선이 어떻게 경제강국으로 추켜올리는가를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멋있게 보여줄것이다. 이 행진에서 위대한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력,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방식의 정당성은 인류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올해의 대전투는 혁명적락관주의로 추방된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신심드높은 전진이다.

지금 공동구호관철투쟁에 떨쳐나선 천만민민은 희세의 실력가인의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실천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세에서도 반드시 대승리를 거둘것이라는 확신을 넘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준엄한 년대들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여온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특히 장군님께서 지퍼하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원히 아로새겨진 사면들을 안이온 지난 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과 장군님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심은 실현되며 기강한 현실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새겨안았다. 전체 인민이 드높은 혁명적신심과 파란에 넘쳐있기에 올해의 총진군은 더 큰 박차를 가해지고 우리 조국은 위대한 대변혁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릴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의약의 해로 빛내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외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군대와 인민이 사상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가 되며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싸워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 위대한 변혁이 일어날것이며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승리적으로 관철해나갈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맥박치고있는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공동구호에는 현지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담겨져있고 대고조전진을 지켜선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섰던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있다. 공동구호의 정신과 내용을 온통이 무장하여야 당의 대고조사상과 정책적의도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고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기본정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투쟁목표를 똑똑히 새겨안고 그 정령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과 목표를 찾아야 한다.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올해의 총돌격전에서 승리의 근본원리는 천만민민이 위대한 혁명의 수뇌부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장군님의 강령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데 있다.

혁명의 수뇌부철수용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제일생명선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절대적권위와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려는 수령철수용의 권위투사 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새해벽두부터 눈보라강령군을 헤치시며 화천발전선군건설을 비롯한 대고조격전장들을 렬하여 현지지도하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강령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부르는 고부귀치기이다.

오늘의 최후돌격전에서 시대의 선구자, 영웅적위훈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속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을 구현할수 있게 대담하게 목표를 세우며 아무런 어려움 난관이 막아서도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강령군을 생각하며 기적을 창조하고 더 높은 실적을 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공동구호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올바른 지침이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것인지는 누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적사업과 열매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고도의 능력이 달려있다.

각급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상전을 벌려야 한다.

선전선동수단과 령도를 총동원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이며 모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공동구호관철투쟁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당의 혁명적근로선의 요구대로 조직전개해나가며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공동구호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전투는 경제조직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과 높은 창발성을 지니고 사회주의적원칙, 실리보정의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 지휘를 대담하게, 박력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선구자, 영웅적위훈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속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을 구현할수 있게 대담하게 목표를 세우며 아무런 어려움 난관이 막아서도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강령군을 생각하며 기적을 창조하고 더 높은 실적을 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공동구호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올바른 지침이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것인지는 누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적사업과 열매를 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고도의 능력이 달려있다.

각급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상전을 벌려야 한다.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자!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65돐을 맞이해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혁명투사들의 심장은 지금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새차게 달아오르고있다.

아버지수령님과 견여하는 장군님을 모가게이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과 의지로 받들어나갈 때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심장깊이 절감한 우리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을 그대로 체현하신 백두산장군이신 견여하는 김일성장군님의 결출한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위에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령도를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이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같이 사회주의 단방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혁명적대전투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의이다.

온 나라에 필승의 기상이 힘차게 나래처럼 하는 공동구호의 구질구질은 우리 항일혁명투사들로 하여금 백두산호방이

로 명성 떨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총공격명령을 받들고 민족해방을 위해 쫓겨나고그리던 조국으로 진군해나간 65년전의 그 환희와 열정이 다시금 가슴에서 융양마냥 끓어넘치게 한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심장을 열화같이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전체 항일투쟁대로가 활물같이 뭉쳐 싸웠기에 우리는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되었다.

시련과 난관이 의연히 우리의 진군을 가로막아도 그 달성해야 할 목표도 방해하지않고 백전백승이신 아버지수령님그대의 령명만 믿고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만 믿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강렬한 군사적힘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반드시 강성대국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만년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릴것이라는 신념의 메아리가 지금 강진을 뜨겁게 진감하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지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항일대전에서 용맹명철던 그 시절의 혁명정신과 열정, 기백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견여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기강한 투쟁의 일장에서 혁명의 1세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특히 우리 혁명의 피출구이며 만년세보인 주체의 혁명전통이 곳곳이 어찌하게 하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침으로써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우리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지대적투쟁에 맞는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심으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므로써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였다. 농사농업의 감작농사를 앞세우고 있고 유기능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도도록 하였다. 농산과 축산을 배합시키고 과일농사를 과학화, 현대화하며 남새와 공예작물, 누에고치와 목화수확을 적극 높여나갔다.

우리 일군들은 정예하는 장군님의 강령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모든 영농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본보기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경쟁바람을 세계적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갔다.

우리들은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겠다. 다시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겠다. 농업생산 리관성

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가 되어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접한 우리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선군조선에 승리와 변혁의 번이 일어나고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같은 일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을 바탕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올해의 대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을 백배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올해에도 견여하는 장군님께서 새해벽두부터 눈보라강령군을 헤치시며 불철주야로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로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계신다.

우리는 철의 기치 김일성과 김일성의 철정광생산기지 무산, 발적리사기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같은 일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우리는 금속공업을 비롯한 4대선봉부문의 전진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거름이 될것을 바라는 견여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일성철천합기업소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무산판관련합기업소, 무산공업단위들에서 더 큰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도록 당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특히 김일성철천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올해에 철강재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데 맞게 그들이 건설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혁명적투쟁을 본때있게 벌려냈다. 이와 함께 어항발전선군건설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성장의 본래로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국산화, 주체화의 포성을 뚫어놓을 것임을 약속했다. 도안의 경공업제품생산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 희망의 두개 전선을 지켜서있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일리마다에서 혁신과 위훈의 람을 높이 쌓아올리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당을 따라 고난의 천리길을 뜻있게 걸어오는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기 위한 오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에 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섰다.

합정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

인민생활향상을 믿음직하게 떠밀어나가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파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활화산의 융양마냥 끓어넘치고있다.

《철은 공업의 왕이며 만복의 밑천이다. 철에서 기계도 나오고 쌀도 사랑도 나온다.》.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라!》 라는 공동구호의 구절들은 이제 금속공업부문의 대고조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뜨겁게 인자된다.

우리는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강철로 당과 수령을 견사우위한 투쟁전열을 더욱 빛내이며 당이 제시한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 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의 내 조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려는 견여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철의 의지가 뜨겁게 새겨져있는 공동구호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가 되여 우리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공동구호에 접한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부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며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우리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지대적투쟁에 맞는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심으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므로써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였다. 농사농업의 감작농사를 앞세우고 있고 유기능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도도록 하였다. 농산과 축산을 배합시키고 과일농사를 과학화, 현대화하며 남새와 공예작물, 누에고치와 목화수확을 적극 높여나갔다.

우리 일군들은 정예하는 장군님의 강령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모든 영농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본보기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경쟁바람을 세계적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갔다.

우리들은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겠다. 다시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겠다. 농업생산 리관성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 선교구역당위원회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주체음악예술의 재보에 깃든 불멸의 업적

국립교향악단 3관편성관현악단조직 4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로동당시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이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귀중한 재보들이 많이 창조되었다.

국립교향악단 3관편성관현악단은 위대한 수령님 시대, 경애하는 장군님 시대가 꽃피운 조선의 커다란 자랑이다. 3관편성관현악단이 조직된 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들에 주체교향악의 위대한 생활력을 소리높이 떨치며 천만의 심장을 혁명과 진실,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준 국립교향악단 3관편성관현악단이 결어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듬을수록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이시며 창조의 영예이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대중이 사랑하는 예술이 가장 고상한 예술이며 진정한 예술입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롭게 독창적으로 그리고 세계를 압도하게 창조해 나간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창조방식, 혁명방식이다.

3관편성관현악단의 조직은 우리의 관현악을 인민의 사랑 받는 참다운 예술로, 우리의 예술을 세계예술의 최고봉에 우뚝 올려 세우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혁명적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주제 59 (1970)년 1월 26 일 백만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서도 현지에 찾아오셔서 매성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3관편성관현악단을 조직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국립교향악단의 창작자, 연주자들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당시 3관편성관현악단은 몇 개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어있었다. 천리마의 기상팔치는 영

웅조선은 마땅히 세계최고의 관현악단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라는것이 벌써 40년전 우리 장군님의 담백하고 배짱이었다.

관현악단도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 식으로 꾸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주자들의 수도 다른 나라 교향악단의 인원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적 령도의 손길아래 100~110명정도인 세계의 이름있는 교향악단들의 연주가수를 뒤편하여 대규모 3관편성관현악단이 이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3관편성관현악단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는 관현악단으로 자랑할만한 고고성을 띠지 않았다.

3관편성관현악단이 조직됨으로써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의 교향악은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단숨에 따라잡으며 세계교향악의 첨단을 돌파할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양악을 조선음악에 복종시켜 민족악의 양악기를 배합하는것, 교향악을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민요와 인민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명곡을 편곡하는 원칙에서 발전시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관현악건설사상이다.

이것은 위대한 주제사상으로 혁명과 위업을 밀고나가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찬미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만 내놓으신것이다. 가장 독창적이고 정당한 사상으로서 장군님께서 주체관현악창조에 쌓아올리신 가장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관현악을 연주시켜서 때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창조현황에 나오시면서 기의 매일이다싶이 3관편성관현악단을 찾아주시고 때로는

정력적인 사색을 바쳐가시면서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즉관악기를 배합하여 순수 양악기로는 흉내도 낼수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울림을 찾아내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장군님!

애 어린 짝을 소중히 품어 애지중지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유적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체교향악의 장엄한 역사를 알리는 기념비적명작들이 려이여 태어나게 되었다.

3관편성관현악단의 탄생과 더불어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한 관현악단인 《그대들의 처녀》, 《내 고향의 정든 집》, 《문경고개》,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도라지》, 불후의 고전명작에 기초하여 창작한 교향곡 《피리바다》와 바이올린협주곡 《사랑가》, 피아노협주곡들인 《조선은 하나다》, 《결전의 길로》...

우리의 3관편성관현악단의 황홀하면서도 독특한 울림에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웅조선의 기상과 분배애를 아시아의 교향악에 대해서는 인정조차 하지 않던 서유럽나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서방가는 곳마다에서 터져오른 환호성은 종래의 낡은 관현악에 대한 우리의 주체관현악의 일대 승리를 나타내는 확인이었다. 이렇게 절세의 위인의 손길아래 조직되어 1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3관편성관현악단은 세계적인 관현악단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며 세계예술의 최고봉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도 바뀌었다.

그 나날에도 3관편성관현악단을 무어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리높이 시위하며 창작된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되새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기초하여 창작한 교향곡 《꽃과는 처녀》, 《한 자위련의 운

명》, 수평영생위업집현곡과 우리 당의 신군정치를 총지휘하게 하는데 크게 공헌한 교향곡들인 《수평영생 영원히 우리와 함께》, 《경계를 받으시라》, 《교향곡 《내 고향의 정든 집》, 관현악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물소 현저에서 3관편성관현악단에서 새로 형성한 작품을 보아주시며 파란만장한 일겨주시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향악을 창조하기 위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신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창조와 령도의 손길아래 려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들에도 주체교향악단 3관편성관현악단은 인간학으로서의 음악예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찬양하며 펼쳐나간 천만민족을 수평영생위업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 공헌을 세울수 있었다.

특히 조선민족음악의 우수성을 과시한 인민예술가 장동석창작음악회와 세계 음악혁명의 포성으로 높이 울린 관현악 합창 《눈이 내린다》는 위대한 성악의 슬화에서 태어나 선군시대에 더욱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의 3관편성관현악단의 비상한 실력과 생생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 주었다.

《유리의 어느 교향악단과도 대비할수 없이 훌륭하다》, 《고전적명작들 다들 조선명곡을 들으니 최고이다》, 《정말 대단하다. 최고이다. 당신들은 예술의 진정한 힘을 알고 진정한 예술을 아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은 행복한 예술인들이다》...

관현악에서 제노라 하는 동서방의 여러 나라 예술인들속에서 터져나온 찬란의 목소리는 정녕 우리 당의 독창적인 관현악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

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처럼 빛나는 려사와 전통을 수놓아온 3관편성관현악단은 지난 40년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쁨드린 관현악작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작들을 창조하였으며 세계 어떤 작품들도 능숙하게 형상할수 있는 판독 있고 실력있는 세계적인 관현악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세계예술계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당의 주체적관현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였으며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자기 초소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켜낸 수령절사옹위의 저단, 혁명적예술집단으로 자랑날 바로 여기에 세계 그 어느 나라 예술집단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3관편성관현악단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있다.

이런 혁명적이고 훌륭한 세계적인 관현악집단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이다. 하기에 이런 훌륭한 예술집단, 나라와 인민의 자랑인 귀중한 문화재보를 안겨주시는 장군님께 감사하건만 저는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는 3관편성관현악단 동무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동무들은 주체교향악을 때리고나서 기동이나 다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의 그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할 우리의 3관편성관현악단의 창작자, 예술인들은 오늘날도 국립교향악단의 주권인 관현악 《김일성위훈록》 드리는 노래를 높이 울리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향해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총진군대의 앞장에서 시대의 전군가를 높이 울려주고 있다. 선군시대 주체교향악을 세계음악예술의 최고봉에 높이 올려세우기 위해 오늘날도 끊임 없는 창조와 혁신을 이룩해가고 있다.

본사기자 정영화

글 작품에 비낀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소원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교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진공의 그 어느 교육단위나 그 어떠한 단들 또는 2월과 7월과 더불어 강간성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터지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고마움의 《노래》가 한껏 울려나오고있다.

교정에 울리는 그리움의 노래는 다른 어떤 이쪽 학생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는 애곡과 고마움의 정을 담아 창작한 글 작품이다.

최근에만 해도 학교 학생들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현저하게 도량행 군것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여러권의 글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작품의 소재와 내용은 서로 달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

반 석 중 학교 에서

성대국건설기상을 받드는 앞날의 어엿한 역군이 되려는 마음속에서는 한결같은것으로 하여 글작품들은 깊은 감명을 불러 일으킨다.

시 한편, 글 한줄을 써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을 먼저 새기고 노래할 줄 아는 이곳 학생들의 높은 사상정신상태는 학교에서 지난 기간 꾸준히 진행해온 글작품창작을 통한 충실성교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사회와 사물현상에 대한 감수성이 빠르고 예민한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글작품창작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는 매우 크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학교 교원들은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반영한 글작품창작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었다.

글은 곧 그 사람의 사상정신세계의 반영이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글작품창작을 통하여 학생들 모두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문학리론과 작품분석, 국어 문법 등 글쓰기에 필요한 국어에 힘을 넣는 한편 학생들속에 시대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벅찬 현실을 글에 담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하고있다. 결과 이쪽 학교학생들은 글쓰기에 필요한 실천적지식을 원만히 갖추어나가고있으며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시대를 위한 문학, 혁명을 이바지하는 문학을 하는 열망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곳들에 대한 참관, 답사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이 현실로 꽃피고나오는 사회주의건설장전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발히 벌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부강조국건설에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잘 알도록 하였다.

지난 기간 학교에서 여러차례 걸쳐 학생들의 글작품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는 크나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그들에게 글짓는 재능을 배워주게 앞서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정신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였기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께 올리는 어엿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글작품창작을 통한 교양사업을 철저히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박 옥 경

생산방법에 따라 큰 볼로크형태와 판형태가 있다.

인조대리석에는 또한 연, 광마공정없이 유리면, 광택수지면과 같은 형태를 리용하여 성형시에 작업의 용이함을 높이기나 형태에 요구하는 미술작품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이 색칠되도록 침윤되어 여러가지 색상과 아름다운 문양을 나타내게 하고 광택을 내게 하는 계통으로 있다.

인조대리석은 다음과 같다

인조대리석의 생산과 리용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 생산기지들에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어진것을 건축물의 내부부재와 벽장지, 기둥의 마감과 장식판, 굽도리나누 등에 쓰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장비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다. 인조대리석은 색깔과 문양이 다양하여 건축물의 내부장식에 광범하게 적용할수 있다.

인조대리석을 만들어쉴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여러 건설자들에게서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서 인조대리석을 만들어 건축물들에 활용하고 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정 명 호

마감건재 인조대리석

은 기술적요구에 만족되어 야 한다.

연마면에 매끈하고 일정한 광택을 보장해야 하며 기공과 흡습이 없어야 한다. 문양과 색깔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제품의 누름계기는 10MPa이상 되어야 한다.

인조대리석은 무늬와 색상을 임의로 조절할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포인조대리석, 고급인조대리석, 문양인조대리석으로 구분할수 있다.

또한 결합체의 종류에 따라 세멘트계인조대리석, 수지인조대리석, 구연염용융물을 리용한 인조대리석 등이 있으며

자가 사는 집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내에 숲이 있으면 주요질병들의 발병률이 낮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35명 정도에 대한 그들의 거주지와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집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내에 숲이 있는 대상자들속에서 우울증과 심장병, 전염병과 같은 주요질병들중 절반이상에 달하

숲 과 건 강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그런 환경에서 사는 12살미만의 어린이들에게서는 우울증발병률이 21% 낮았다.

전문가들은 《녹색지역에서 살면 질병발병률을 낮추고 정신상태를 없애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녹색공간이 인체건강의 요오스로서는 사실이다 하고 한번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설맞이 풍습

고 설맞이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뒀다. 녀성들은 설날이 다가오면 식구들의 설상을 마련하는데 세비교적 부유한 집들에서는 세천으로 옷을 지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일년 옷이라도 깨끗이 손질하여 입었다.

또한 한 가족이 펼쳐나 집안편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질하였으며 벽이나 미닫이 등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붙여 명절분위기를 높였다.

우리 인민들의 설맞이준비에 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는 설음식을 성의껏 마련하는 일이었다. 설날 그림날에는 집집마다 설맞이떡을 만들어 먹어야 할듯하고 젓고 가루도 냈으며 떡을 물어 삶거나 찜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정도 지지고 고기와 나물도 부엌에서 설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우리 인민은 설날이 밝으면 우선 세배부터 하였다. 설날 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을 위하여

연 회 마 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을 위하여 6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성원들과

파 류호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영남부장, 김성남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꾼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설음식 만드는 방법

△ 떡 국

— 음식감 (1그릇분)

원할 153g, 찹지옥 (또는 닭지옥) 100g, 팥알 반알, 김 3g, 파 10g, 마늘 3g, 소금 2g, 간장 5g, 참깨 0.5g, 참기름 2g, 맛간 0.3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원할은 깨끗이 씻어 일어서 찬물에 4~5시간 불군 다음 물을 짜주고 말려준다. 이것을 보드랍게 분쇄하여 채로 쳐서 소금과 찹을 넣고 익힌다하여 일정한 크기로 반대기를 빻은 다음 찹을 찹기마의 시루에 안쳐서 40분간 찌고 10분간 뜬을 들인다.

찹 반대기를 기계에 넣어 간질 3cm의 떡가래를 뽑은 다음 기계로 두께 0.3cm의 나무모양으로 뺨 편대를 얹어 놓는다.

찹지옥 (또는 닭지옥)은 깨끗이 손질하고 삶아 삶은 꺾적하게 찢어놓고 찹은 국물을 만든다. 파는 5cm로 엷썰고 마늘은 다진다. 김은 찹기마와 소금을 발라 구워 부스르뜨른다. 닭알은 그것에 깨넣고 물과 소금을 약간 두고 튀겨서 달아오른 지점점에서 지져 마뺌대양으로 썬다.

찹 떡국물에 슬쩍 물에 행구어 찼는 찹고기국물에 넣고 2

설음식 만드는 방법

《 설음식만드는 방법》

분간 삶어 그릇에 담고 그우에 삶은 찹고기 (또는 닭고기)를 넣고 파, 마늘, 닭알, 김, 참깨, 후추가루를 뿌려 낸다.

△ 찹 떡

— 음식감 (20그릇분)

원할 2.448kg, 소금 20g, 흰당료 204g, 붉은 팥 204g, 완두 204g

— 만드는 방법

원할은 깨끗이 씻어 일어서 물에 담고 4~5시간정도 불군 다음 물을 없애고 찹기마에 안쳐서 40분간 찌고 여기에 연한 소금물을 뿌리고 10분간 뜬을 들인다. 찹알을 뜨거울 때 찹기에 넣고 풀기까지 찹알이 완전히 풀리면 0.7~0.8cm의 두께로 퍼놓아 식힌다. 떡이 식으면 길이 6cm, 너비 4cm 크기로 썰어 세로로 나눈 다음 당풍보송이, 붉은팥보송이, 완두보송이를 각각 문힌다.

△ 흰 설기떡

— 음식감 (10그릇분)

원할 1.1kg, 참쌀 430g, 소금 12g, 사탕가루 350g

— 만드는 방법

원할과 참쌀은 깨끗이 씻어 일어서 찬물에 담가 4~5시간 불군다. 이것을 맑에 갈아 깨끗한 로리용자루에 넣고 앙글을 걸러낸 다음 부슬부슬하게 달리운다. 달리운 가루에 소금

몇 가지

과 사랑가루를 두고 잘 비벼준 다음 생긴 채로 찜다. 삶은 찹기마의 시루우에 물에 적신 두리용건을 펴놓고 쌀가루를 두루 하게 안 친다. 다음 30분간 찜이 넓은 그릇에 쏟아서 담는다. 이것을 식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것에 크게 좋게 담아 낸다.

△ 고사리나물

— 음식감 (1그릇분)

마른 고사리 50g, 파 10g, 마늘 2g, 닭 5g, 개소금 5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마른 고사리를 속쌀물에 3~4시간정도 담갔다가 남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쪄 삶는다. 이것을 다시 찬물에 담가 하루 밤동안 우려서 된장을 풀러낸 다음 5~6cm 길이로 썬다. 마늘은 다지고 파는 5cm 길이로 엷썰다.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달구다가 파의 잎을 불리고 향기나게 볶은 다음 고사리를 넣고 볶는다. 여기에 고기국물이나 약간의 물을 두르고 끓이면서 뚜껑을 덮고 3~5분간 뜬을 들이며 볶는다.

국물이 찾아들고 고사리가 만만해지면 깨소금, 간장, 나머지, 마늘, 후추가루를 두고 볶아 낸다.

왕광봉사관리국 박사 김정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도착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이 6일 평양에도착하였다.



나이지리아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형에 의한 나이지리아인

왕가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이 6일 평양에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류호명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나이지리아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정학세 동지가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행복한 과 학자가 가정의 학습 기쁨—만경대구역 칠골 3동 12인민반 김득동무의 가정에서—전성남 적음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올해 공동사업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지적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 공동사업에 제시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진인들의 지향과념인, 시대적요구와 과제를 명백히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얼마전 우리 나라 위무성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이 제안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물어보면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전쟁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언제 한번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

조선반도와 같이 전쟁이 일어난지 반세기 가 넘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지역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오늘 조선반도는 어느 시각에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참예한 열점지역으로 되고있

다. 낮은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체제로 바꾸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하여 정전협정이 빈껍데기만 남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된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조선전쟁정전협정당사자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회피할수 없는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전협정을 전면부정하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군조약을 체결하였는가 하면 저들의 새 전쟁준비책동에 방조하여 남조선을 거대한 병기고로, 국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을 리해할 사명을 지닌 정전감독기구들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현 정전협정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오인에 의한 군사적충돌도 방지할수 없게 되어있다. 최근년간의 서해해상사건 등은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정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중지, 적대행위의 중단만을 의미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 교전관계에 있다. 조미교전관계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자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된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침체에 빠진 경제를 평화관계, 신뢰관계로 전환시킬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것이 현시기 절박한 과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조선반도가 첨예한 군사대결장면으로, 위험한 전쟁발진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충격을 진행하면서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발판하고있다.

남조선과 일본 등 조선반도주변에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배치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하의 전쟁연습들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침략적대조선전략에 따라 감행되고있는 조선반도주변지역에서의 미국의 무력진전배치와 광범위한 전쟁연습들은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다. 세계정상으로 류예없는 장기고도의 조선반도정전상태는 오늘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발적인 전선한라인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는 급선무는 하루빨리 낮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화적환경이 조성될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할 절박성은 현시대의 기본흐름과도 관련된다.

백년이 종식된지도 20년이 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긍정적변화가 일어나고있다.

현시대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이다.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현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분쟁과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공동의 번영발전을 다그쳐나가고있다.

현시대의 흐름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있다. 지난해 미국은 《오티나 슈빌 해럴드 트리블》은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평화를 먼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데 대해 전하였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글에서 현 미행정부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조선적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미조선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절박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긴절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미국이 변화된 정세와 역사발전의 흐름을 옮겨 보고 자국의 리익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개선해나갈 정치의지를 지닌다면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순조롭게 풀릴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네 때에 이르러면 표명하였으면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용의도 내비친바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릴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와 세계경제발전에는 물론 미국에도 리로울것이다.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림강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라 지니지 않는가라는 시금식으로 된다. 미국은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데서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림강은 일관적이다.

우리 공화국은 올해 공동사업에서 친명린 사상과 림강에 따라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김 종 손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한 외국인들이 강조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역사를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당건설에 쌓인 성과에 대한 수평적인 평가와 높은 자부심을 표현하는 열정을 보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 소장 위헌정 에디에 케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로동당은 경제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당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고 해방직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당창건기념탑은 주체사상을 영현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당건설과 활동에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드림있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누구나 여기에 와보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로정에 대하여 잘 알게 될것이다.

중국공산당친선대표단 단장 락수강은 탑에 오르고 내려와 함께 붓이 있는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 종 손

깊이 뿌리박고 견제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있다.

마치와 낮과 붓을 형성한 마크는 조선로동당이 근로인민에 대한 대증대방이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리익을 찾아서 놓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진정한 보호자, 향도자로 믿고 따르며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라오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장 캄판 쉐티파는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건립된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아 당창건기념탑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기념탑은 김일성주체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의 발전정세를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주고있다.

기념탑의 건축적인 완벽함과 그에 담긴 심오한 내용에 깊이 감동되었다.

김일성주체의 당건설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 평양 — 백전백승 》

로씨야 신문의 글

로씨야신문 《쁘리프르드》 제 4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평양—백전백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원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갖은 비난을 일삼고 경제적봉쇄와 군사적위협행동을 강화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평양성2호》 발사와 제 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평토도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의자원의 끊임없는 압살행동속에서 선진국가들도 달성할수 없는 성과를 거둔것은 세계적인 사면이라고 평하였다.

미국이 《군사적우세》에 대해 떠들지만 조선은 백전백승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전민투쟁화가 실현되고 조선인민군은 현대적무장장비들을 갖추고있다.

가장 중요하것은 조선인민의 높은 전투정신이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

칠 준비가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터지는 수류탄을 자기의 몸으로 덮고 희생되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전례되고있다.

이런 일은 남조선에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은 이라크와는 대비도 안된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되어있고 백전백승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신문은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본사기자

까를로스 빠블리아스 그리스대통령으로 재선

그리스에서 까를로스 빠블리아스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었다.

그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국가관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가 1월 31일 탄담 화석상에서 국가관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판리성원들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슬람교혁명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바로 불용적인 현존국체제를 정의를 기초한것으로 바꾸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랍치행위를 규탄

레바논의 무 및 이민성이 1일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랍치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것을 레바논문제에 관한 유엔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행위로 랍인하였다. 공보국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 000여건이나 된다 고 폭로, 단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

도이칠란드인들속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나라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과 나토의 《반테러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라고 비평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5%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당국의 무력증대계획을 반대해나섰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성에서 실례의 원인을 조사한뒤에 부다소통을 피우고있다.

본사기자

미국 미사일요격시험에서 실패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레이다에 이상이 생겨 목표미사일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한다.

기후변화의 위협성과 엄청난 후과

현시기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활과 발전에 파괴적인 전쟁에 못지 않는 지리적적인 후과를 미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속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러전

우리들이 믿고서있는 땅덩어리의 일부가 마치않아 물속에 잠긴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나라들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를 놓고보자.

최근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원래 이 나라는 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로 《이상온도》현상이 급격히 증대되어 땅이 물속에 잠기고 농작물이 농작물이 사라지는 일부가 바다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수명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 총회장은 기후변화가 보건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되는데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상해시도 바다물에 잠길 것이라고 전하였다. 전문가들이 예측한데 의하면 바다물면이 2030년에 지금보다 12cm, 2050년에 는 25cm 높아질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해시가 침수될수 있다고 한다. 상해해안과학연구원원의 한 박사는 《바다물면의 한 상해시의 침수는 결코 사람들이 놀래우려고 일부러 지어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절정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50년경에는 상해시의 일부가 바다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협성과 엄청난 후과

3-5m의 도시로서 해마다 물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바다물에 의해 도양침식이 일어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2009년 12월초에 학자들이 예측한데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계대양의 물면이 이전에 예견하였것보다 2배나 더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디아양에 있는 섬나라인 말디브제도도 조만간 해바다물에 잠길수 있다고 한다. 바다물면이 높아지는 주요원인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는데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

전문가들은 가까운 앞날에 기후변화는 인류공존의 위협한 《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것은 현시기 인류공존의 과제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막대한 후과가 미칠수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공존의 위협한 《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것은 현시기 인류공존의 과제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단평 폭력배의 강판행위

얼마전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부루스시 남쪽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이 나무심기를 할 때였다. 갑자기 이스라엘병사들과 유대인들이 한창 나무를 심고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을 공격하여나섰다. 그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최후란까지 쏘아대면서 땅기를 부리었다. 이로 하여 여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질식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 광경을 사진전문 기자들도 이스라엘병사들한테 폭력을 당하였다고 한다. 평토평창에 환장한 폭력배들의 강판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고 한다. 그런것만큼 팔레스티나인들의 나무심기는 정정당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병사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제방역을 나무심기를 하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니 이야말로 무지마치한 날장도행위가 아닌가. 침략자들의 포악성과 잔인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나무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후란을 피우며 폭행을 가하였다 는 말을 처음 듣는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런 방법으로 팔레스티나인들의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고 저들의 강점정책을 계속 실시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강도적행위는 국제적공법과 파벌의 길을 걷는 강점자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백 문 규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그는 로씨야외무성은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일본어선들의 어업활동을 금지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협정과 로씨야연방의 명해질서를 엄격히 준수할것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명하였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특별검사조치

《레포공보》으로 새해를 맞이한 미국이 정초부터 《반테레》의 미명하에 오만무례한 전횡을 일삼고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치는 항의와 규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

일본의 항의를 일축

로씨야외무성이 1일 남부 루블랴도부근에서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한 로씨야국경경비대원들의 사적사건과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미국이 1월 31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했다고말하였다.